

목양칼럼

고르지 않은 곳

지난 수요일, 교회 앞 도로가 새롭게 포장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된 공사가 오후 늦게 마치고
그동안 울퉁불퉁 고르지 않았던 도로가 평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인들도 불편했고,
임직 예배에 많은 분이 찾아오실 때 고르지 않은 곳을
지나오시겠다는 안타까움도 있던 차에 도로공사가 멋지게 끝난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는 것 아세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그대를 맞으리.... 사뿐히 밟으며 와주오”

사랑하는 이를 맞이하기 위해 주단을 준비하여 마음에 깔아 놓았으니
사뿐히 밟으며 와달라고 합니다.

흥,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연인은 참 좋겠어요.

마음에 주단을 깔아 맞이하겠다는데요. 사뿐히 거닐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신랑,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이샤야 선지자는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그것은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임직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평탄하게 오시도록 교회 앞 도로공사는 끝났는데

주님이 거니실 내 마음은 여기저기 패이고

고르지 않아 울퉁불퉁 한 것은 아닌가요.

누구는 주단 위를 사뿐히 거니는데,

우리 주님은 거니시기를 난감해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O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진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영희/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웅/OPEM대학부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규/청년부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총회국회 (646)789-1118
장다/중국어부 (929)204-6868	
직원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찬양대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진식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윤현주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경희
	반주 / 김정윤 임세현



주후 2017년 10월 29일
제 43-44호

주일예배

사회: 김성국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31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김원도 장로
		2부 / 임 정 장로
		3부 / 정성호 장로
		4부 / 이무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빌립보서 4:4-7	사회자
찬양 CHORUS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임마누엘 찬양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호산나 찬양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시온 찬양대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참 평강의 삶	유재일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410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620 / 2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유재일 목사
* 표는 일어섬		

주일 저녁 예배

장로 임직 감사 예배

오후 5:00 (10/29/17)	사회: 김성국 목사	
서곡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킹스콰이어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37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210	다같이
기도	이규본 목사	
성경봉독	이영상 목사	
	디모데후서 2:15	
찬양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대
말씀	유재일 목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화답송	평화의 기도	글로리아싱어즈
헌금	314	다같이
봉헌기도	문종은 목사	
	장로 임직식	
축도	장영춘 목사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Romans 12:1-8	
Prayer	Dn. Mary Cho	
Sermon	Peter D. Kim	
	"A Worshipping Community"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сестра Т. Лян	
	от Матфея(Mt.) 4:1-11	
Молитва	брат И. Пегай	
Проповедь	пастор В. Сон	
	"И не введи нас в искушение..."	

수요 기도 예배

오후 8:00 (11/1/17)	사회: 손요한 전도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광고	사회자	
성경봉독	사회자	
	역대상 17:1-15	
찬양	찬양대	
말씀	손요한 전도사	
	여호와의 말씀	
찬송	546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 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太(Mt.) 23:16-24	
证道	常达传道	
	谁有祸了? (II)	

새가족 환영회

4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써머타임 해제 (Daylight Saving Time Ends)

11/5(주) 오전 2:00를 1:00로

2017년 교육 컨퍼런스

강사: 정주성 목사
11/11(토) 오전 8:30

교회소식

10월 말씀의 달 -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10/29(주) 장로 임직 감사 예배	11/1(수) 지도원 성경 공부
11/5(주) 써머타임 해제, 장년 성경 공부 주기도문(VII), 선교회 월례회	11/10(금) 구역예배
11/11(토) 교육 컨퍼런스	11/15(수) 신학교 찬양의 밤 11/19(주) 성례 예배

알림

-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신 KAPC 총회장 유재일 목사님(앵커리지 열린문교회 담임)께 감사드립니다.
- 장로 임직 감사 예배**가 오늘 10/29(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식사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We are that Dream 장학생 선발** 본선이 11/4(토) 오전 8:00에 있습니다.
- 써머타임(Daylight Saving Time)** 11/5(주)에 해제됩니다. 오전 2:00를 1:00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 2017년 교육 컨퍼런스 안내** 1) 일시 11/11(토) 오전 8:30 2) 강사: 정주성 목사
-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교육 장소 안내**
2부 예배 후(오전 11:45) 210호(학습), 213호(세례)
4부 예배 후(오후 3:15) 303호(학습), 305호(세례) 중 택일
- 추수 감사절 만찬 기증** 11/23(목) 추수감사의 밤 터키 만찬을 위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문의: 각 교구장
- 11/4(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임마누엘 찬양대 (다음주: 1교구)
- 가족기념 장학기금** 설수용 집사, 설정애 권사, 정해성 집사, 정주영 집사

새가족

정은광 (요한 2F5) 고경미 (다비다 1F3) 신장섭 (요한 1F11, 신윤선 - 뱀비, 신지아- 유년) 황해현 (뱀비 2F2, 황시현- 유아) 조선희 (루디아 1F7)

교우소식

- 결혼** 임재은 양(임석환 집사, 임신옥 집사의 차녀 2F14)과 임선환 군의 결혼식이 11/4(토) 오후 4:30에 Marina Del Rey 에서 있습니다.
- 소천** 김관도 집사(김정란 권사 1F1)께서 10/22 소천하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강평호 교우(강선미 집사 4F3)께서 10/25 소천하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금식기도사

- 주 / 조나영 정기영 이해정 박지연
월 / 조나영 최지혜 이양미 흥한나 송정향 박지연 화 / 차동미 최지혜 정민영 흥한나 송정향
수 / 김근희 이지운 박대희 팽정은 목 / 정은숙 이지운 채현주
금 / 정주영 이지운 채현주 박대희 팽정은 토 / 박석미 이양미 팽정은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308	러시아어 예배	24	영어부	29	중등부	62
2부 예배	412	청년 선교부	85	유아부	30	고등부	67
3부 예배	331	주일 저녁 예배	260	유치부	34	청년 대학부	40
4부 예배	161	새벽 예배	1978	중국어 교육부	16	교회 학교 예배	456
영어 예배	161	수요 기도 예배	238	유년부	99	주일 낮 장년 예배	1759
중국어 예배	277	새가족 환영회	11	초등부	79	주일 낮 총계	2215

10월 봉사위원 (11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김용생 장로(전성호 장로)

헌신기도	송동윤 장로	정길표 장로	김수산 장로	차상남 장로
책임권사	남궁혜령 권사 (최용숙 권사)	김미건 권사 (김경미 권사)	장광숙 권사 (송경순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혁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르다, 베드로(브리스가, 아굴라) 주일식사: 다비다 (다음주: 루디아)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13)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499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4장 1-6절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죽은 것과 아직 출생하지 않은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악한 일들을 만나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범죄들, '절마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할 수 있겠나' 할 때 보란 듯이 더 나아가는 사람의 욕심을 보면 차라리 죽은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2-3).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하기에 모든 수고와 재주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죄를 죽이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405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4장 7-12절

사람의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먹고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한번 먹었다고, 무엇을 이뤘다고 만족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수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고가 100% 자기를 위한 것이면 좋겠는데 수고의 대가를 그대로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7-8). 그래서 전도자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말합니다. 함께 고생하면 금방 친해지지 않습니까? 서로의 처지를 알고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 있었다는 데서 오는 마음이 귀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험들이 소중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좋고 강합니다(12).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바쁘고 험한 세상에서 서로의 위로와 응원이 되어주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540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2장 18-26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와 어리석고 늙은 왕 중 누가 더 나을까요? 전도자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고 합니다(13). 왜냐하면, 아무리 왕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며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어리석고 둔하여 조언을 듣지 않고 경고를 받지 아니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빨리 자리에서 내려오기 마

련입니다. 아직 어리고, 가진 것이 없습니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왕을 대신하여 일어날 것입니다(15). 그리고 늙고 아둔한 왕의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왕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까(16).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서 교훈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183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5장 1-7절

하나님의 집을 들어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해야 합니다(1). 마치 막 태어난 아기에게 가까이 갈 때 손을 씻고 먼지를 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갈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2).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인간과 하루살이의 차이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이 땅에 밭을 붙이고 살아가며 길어봤자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아는 것,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197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5장 8-14절

부자가 잠을 잘 잘까요, 잘 못 잘까요? 전도자는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 나라” (12)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쌓을지라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11). 재물이 많아진다고 이제 욕심이 적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벌고 싶은 걱정, 더 지켜야 할 걱정들이 생기기엔 아이러니하게도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잠을 더 못 잔다고 말합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 이런 만족함이 없는 욕심이 있나요? 나의 진급인가요? 인기인가요? 진정한 만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250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5장 15-20절

수고도, 지식도, 재물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일까요? 전도자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일평생 동안 잘 먹고 마시며 모든 수고하는 일에서 행복을 찾고, 즐겁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18). 수고한 대로 샅을 받고 삶을 누리는 것은 사실 죄악된 우리 삶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19).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선물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